

# 완전국어 기출보감 소방직 문제자료

이재현 hohosam.com

[경기도 소방직 9급]

## 1. 다음 글의 밑줄 친 속담과 같은 의미의 한자성어는 어느 것인가?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가 소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인터넷과 웹은 더 이상 특수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도구로 변모했다. 웹의 대중화가 불러온 다양한 변화 중에서 가장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인터넷 검색과 전자상거래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에 검색어를 입력,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브라우저를 통해 상품을 고르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상품 배달까지 해주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상을 살펴보면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라는 옛 속담이 떠오른다. 이 속담처럼 현재의 인터넷과 웹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를 잘 표현한 말도 흔치 않을 것이다. 한없이 편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으로 인터넷이나 웹 같은 기술의 발전도 가능했다고 본다.

- 강희성, ‘웹 서비스와 시멘트 웹’

- ① 교각살우(矯角殺牛)
- ② 수주대토(守株待兔)
- ③ 오비이락(烏飛梨落)
-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 2. 다음 중 사이시옷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댕가
- ② 나룻배
- ③ 횃수
- ④ 아랫니

## [문제 3 ~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무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무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쫓 천지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장터’







영어의 그런 득세는 물론 영어가 국제어의 지위를 얻었다는 사정에서 나온다. 영어가 실질적으로 국제어의 자리를 차지한 지는 벌써 여러 해고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국제어 대접을 받고 있다.

걱정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선 국제어가 나오는 과정과 국제어의 등장에 담긴 뜻들이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게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는 길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다. ‘세계화’라는 구호가 나부낀 지 오래지만, 우리 사회에선 세계화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다. 분명한 것은 영어가 우리의 모국어는 아니므로, 영어의 득세는 우리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이다.

이런 예측은 언어의 습득과 사용에 관한 생물학적 사실들에 의해 떠받쳐진다. 근년에 생물학과 심리학의 빠른 발전은 언어에 관한 종래의 생각들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놓았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지닌 언어 능력은 특정한 언어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종과 관계없이, 어떤 언어나 배워서 쓸 수 있다.

다음엔, 사람이 첫 언어를 배울 때 쓰는 뇌의 부분과 차후 언어들을 배울 때 쓰는 뇌의 부분은 다르다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첫 언어로 배우는 것과 차후의 언어들을 배우는 것 사이엔 근본적 차이들이 있다. 사람들이 모국어는 아주 잘 쓰지만 커서 배운 외국어들을 쓰는 데는 근본적 한계를 지녔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안다. 각각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의도되지 않은 대조 실험’들의 결과도 널리 알려졌다. 중학생인 아이는 영어를 배우는 데 애를 먹지만, 초등학생인 아이는 쉽게 영어를 쓰게 된다. 근년에 미국에서 한국인 2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런 영어 습득 능력에서 열두 살이 경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실험은 사람이 대체로 열한 살까지는 첫 언어를 배우는 뇌의 부분으로 언어를 배우지만, 열두 살부터는 차후 언어들을 배우는 뇌의 부분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사실은 국제어를 모국어로 갖지 않은 사람들이 겹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가리킨다.—그들은 언어 하나를 더 배워야 할 뿐 아니라, 뒤에 배우는 국제어를 제대로 쓸 수도 없다.

따라서 경제의 논리는 사람들이 차츰 국제어를 모국어로 삼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은 너무 늦었지만, 자식들에게 국제어를 모국어로 배울 기회를 주려고 애쓸 것이다. 이런 사정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언어를 아주 쉽게 바꾼다는 사정을 잘 설명한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 쓰는 데는 한 세대면 족하고 모국어를 잇는 데는 세 세대가 채 안 걸린다.

-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 ① 모국어가 상실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② 모국어가 사라진 후에 그 공백은 어떻게 매울 것인가?
- ③ 영어를 못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 ④ 한국인에게 있어 언어란 무엇인가?

####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지금 내 수중에는 천 원밖에 없다.
- ② 그 사람은 오히려 사과는 커녕 미안한 기색마저도 보이지 않았다.
- ③ 제 시간에 출석한 사람은 철수 뿐이었다.



- ③ 범속하고 저속한 통속 문화를 배격해야 한다.
- ④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 [부산 소방직 9급]

### 1. 다음 문장 가운데 어법에 맞게 표현되지 않은 것은?

- 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 ② 정부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③ 사무실에 지저분하게 벌여 둔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하세요.
- ④ 물살에 휩쓸린 배가 바위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났다.
- 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행지의 사람들이 모두 인정이 많았다.

### 2. 다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글을 독해하는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한 편의 글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므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각 단락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각 단락의 요점을 요약한 다음, 그것들을 다시 공통되는 내용끼리 묶으면 한 편의 글의 구성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에 의하여 전체의 내용 구조가 파악된다.

- |               |               |
|---------------|---------------|
| ① 분석-요약-종합-이해 | ② 요약-분석-종합-이해 |
| ③ 이해-요약-분석-종합 | ④ 요약-이해-분석-종합 |
| ⑤ 분석-종합-이해-요약 |               |

###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오류의 양상으로 알맞은 것은?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 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① 문장의 내용과 화자의 입장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 ② 단어의 의미가 애매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③ 문장의 구조가 어법에 어긋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
- ④ 독자의 심성에 호소하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 ⑤ 앞 뒤 사건의 인과성이 결여되어 소설적 구성이 허술하다.

### [문 4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가) 우리는 여기서 ㉠ ‘굿(제의)에서 놀이(연희)로의 공식’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자. 춤놀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연희자 간의 무용, 노래, 재담 등은 원래 원시 시대의 굿에서는 주신(주무)과 배신(소무)주신을 보좌하는 신 사이, 또는 주신, 배신, 무사이의 대무(對舞), 대화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제사권이 소수의

사제자들에게 독점되어 있었고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비의로서 신비화되고, 그 주술성의 효과도 널리 집단에 의해 믿어졌기 때문에 굿은 집단 전체에게 있어 언제나 종교적 외포(畏怖) 두려워함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역사의 경과와 더불어 중세적 사회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제사권 참여가 이루어져 종래의 제사 독점에서 오는 의례의 신비성도 차차 희박해지고, 생산력의 상승으로 자연의 불규칙성도 어느 정도 극복되어가면서, 의례가 가지는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집단의 의례 자체를 종교적 외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적 감상과 오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 시점에서 종래의 주신, 배신, 무 사이의 대무와 대화는 종교적 의미를 서서히 잃고, 구경거리 혹은 예능, 더 나아가 연극으로 전화(轉化)하기에 이른다.

(나) 이리하여 봄과 가을의 마을굿에서 맞이하는 주신을 나타내는 탈을 무당이나 마을 사람들이 쓰고 주신과 배신 간의 대무, 대창을 하게 되고, 별신굿 탈놀이 및 마을의 농악대가 풍작(豊作)을 기원하기 위한 모의 농경을 하고 (강릉 농악), 집단의 생명력을 구가하는 성장 의례인 청소년에 의한 씨름이나 줄다리거나 편싸움, 또는 풍년과 자손 번창을 위한 신사 의례(神祀儀禮)가 행해졌으나, 신앙심의 감퇴와 더불어 이들 향연 의례는 주술성을 잃고, 축제성과 예술성이 우세한 것으로 되어 가면서, 신과 무격 사이의 대무나 대창은 축복을 위한 춤이나 놀이가 되고, 씨름 등은 잡기나 희극으로 전화되어 간다.

(다) 이와 같은 향연 제의의 희극으로서의 전화뿐만 아니라, 원령(怨靈)의 진혼 제의의 비극으로서의 전화도 문제가 된다. 원래, 원시 집단에서는 천수를 다한 사자(死者)의 영(靈)은 저승에서 그 집단의 수호신, 즉 '조상'이 되는데,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역병, 전쟁 등으로 요절(병사, 전사)한 원혼들은 이들 집단에 해를 끼치므로 이를 잘 달래고 위무해야 한다. 이러한 진혼 의례는 무격이나 승려 등 종교 사제자가 전담하여 오래도록 외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혼 의례마저도 점차 종교성을 잃게 되어 원귀 기복(冤鬼祈福)의 대무와 대창은 유귀(幽鬼)가 비명에 간 이야기를 보여 주고 들려주는 구경거리로서 집단의 감상 대상으로 전화된다. 여기에서 비극이 탄생되게 된다.

(라) 우리는 이와 같은 전화의 한 예로 동해안 별신굿에서 노는 거리굿의 장면을 들 수 있다. 각 거리마다 죽은 귀신의 이야기로서 음산한 잡귀 퇴송의 종결부를 희화화, 비속화한 웃음으로 끝맺고 있다. 비극과 희극의 예술로 심화 내지는 승화시키지 못하고, 한낱 민속극으로 머무르고 만 데에 우리의 연극사의 문제점 내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다.

- 이두현, '한국 축제(祝祭)의 역사'

#### 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사회에서의 제사권은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었다.
- ② 굿의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이 전승되었다.
- ③ 향연을 베푸는 제의에서 희극이 유래되었다.
- ④ 원혼을 달래는 제의에서 비극이 유래되었다.
- ⑤ 사고로 죽은 혼령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었다.





- ③ (다) - 원망, 다짐  
 ⑤ (마) - 탄식, 한탄

- ④ (라) - 고독, 연모

13. 화자의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음 작품과 가장 유사한 것은?

咽鳴爾處米	열치매
露曉邪隱月羅理	나타난 달이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야?
沙是八陵隱汀理也中	새파란 내에
耆郎矣 史是史藪邪	기랑의 모양이 있어라!
逸鳥川理叱적惡希	이로 냇가 조약에
郎也持以支如賜鳥隱	낭이 지니시던
心未際叱 逐內良齊	‘마음의 끝’을 좇고져.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아으, 잣[栢]가지 드높아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서리를 모르올 화랑장이여!

- 충담사, ‘찬기과랑가’

- ① 어저 내 일이어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라 하드면 가랴마는 제 구타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의 시조
- ② 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
- ③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님 있으랴.  
 밤중만 일편명월이 기 벗인가 하노라.  
 - 신희의 시조
- ④ 구름이 無心(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中天(중천)에 떠 이셔 任意(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光明(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 이존오의 시조
- ⑤ 눈 마즈 휘여진 덕를 뉘라셔 굽다던고.  
 구불 節(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써인가 흥노라.  
 - 원천석의 시조

14. 다음 시의 밑줄 친 부분에 내포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노주인의 腸壁(장벽)에 무시로 忍冬(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

흄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風雪(풍설)소리에 잠작하다.  
 산중에 冊曆(책력)도 없이  
 三冬(삼동)이 하이얗다.

- 정지용, '인동차'

- ① 절망과 고뇌
- ② 비애와 탄식
- ③ 탈속과 경지
- ④ 고독의 정서
- ⑤ 고난과 시련

[문 15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누이는 시내 어떤 실업가의 막내아들이라는 작달막한 키에 얼굴이 검푸른, 누이의 한 반 동무의 오빠라는 청년과는 비슷도 안 한 남자와 아무 불평 없이 혼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결혼하는 날, 누이는 가마 앞에서 의붓어머니의 팔을 붙잡고는 무던히나 슬프게 울었다. 아이는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누이는 동네 아낙네들이 떼어 놓는 대로 가마에 오르기 전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자기를 찾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는 그냥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누이가 시집간 지 또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별나게 빨간 놀이 진 늦저녁때 아이네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뒤에 과수 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 버린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을 손으로 폈다. 흄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힘껏 파 냈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 보았으나 없었다. 벌써 썩어 흄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도로 골목을 나오는데 전처럼 당나귀가 매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체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 나처럼, 우리 널 왜 찍엔! 왜 찍엔! 하고 소리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뛴수록 아이의, 왜 찍엔! 왜 찍엔! 하는 지름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아이는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의, 데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은 거로 착각하면서, 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렀다. 이번에는 어느 쪽 다리도 빠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피었다. 어느 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돌아났다가 눈물 권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 속의 별을 내몰았다.

- 황순원, '별'

15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별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동화적인 분위기가 작품의 서정성을 더한다.
- ② 한 인물이 삶의 과정에 눈떠 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 ③ 적절한 사투리의 구사가 더 실감나는 표현의 효과를 준다.





[문 2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가)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의 가락에 있는 것이 시가문부(詩歌文賦)이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 가락을 맞춘다면, 다 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가 있는 것은 유독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 길는 아낙네들이 에야디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그 진가(眞假)를 따진다면, 정녕 학사(學士)나 대부(大夫)들의 이른바 ‘시부(詩賦)’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 김만중, ‘서포만필’

(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너무도 유명한 영조·정조 시대 북학파(北學派)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나 ‘방경각외전(放瓊閣外傳)’에 실려 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諷刺)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이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推仰)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폐관(廢官) 기서(稗官) 奇書(奇書)를 따르고 고문(古文)을 본받지 않았다 하여,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 춧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古文派)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은 아닐까? -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유학자로서 500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다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학문을 보통 ‘수기치인’이라는 말로써 정의하는데, 이는 다산이 “군자의 학문은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하나는 수기요 또 다른 하나는 치인이다.”라고 한 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다산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사상을 그의 저술에서 살펴보면, 크게 ‘수기’에 해당하는 ‘경학’과 ‘치인’에 해당하는 ‘경세학’으로 나눌 수 있다. 경학이 육경사서를 중심으로, 원시 유가의 본지를 파악하여 인간의 올바른 삶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면, 경세학은 이러한 경학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기의 경학과 치인의 경세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공존공생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 이요, 決(결)코 他(타)의 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요. 決(결)코 舊怨(구원)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 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羈縻(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 상태)를 改善匡正(개선 광정)하여, 自然(자연), 又(우) 合理(합리)한 正經大原(정경 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 ‘기미독립선언서’ 제6단락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다)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哀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 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 '바위'

(라)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지  
머무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지

사랑도 짐승도 초목도  
항시 모두가 / 가는 듯 그냥 머물고 / 머무는 듯 그냥 가고  
하늘이 따로 어디 있기에 / 땅이 어디 따로 어디 있기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인데 / 끝내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린 / 모두 가는 듯이 그냥 머물고  
모두 머무는 듯이 그냥 가고

- 김양식, '황소를 바라보며'

14. 위의 시 중 일체의 감정과 외부적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정적 자아의 의지적인 어조를 나타낸 것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5. 다음 중 (나)의 밑줄 친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 이상세계, ㉡: 세속적 존재, ㉢: 장애물, ㉣: 이상세계
- ② ㉠: 장애물, ㉡: 이상세계, ㉢: 세속적 존재, ㉣: 이상세계
- ③ ㉠: 이상세계, ㉡: 장애물, ㉢: 세속적 존재, ㉣: 이상세계
- ④ ㉠: 세속적 존재, ㉡: 이상세계, ㉢: 장애물, ㉣: 이상세계

16. 위의 시들에 대한 비평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가): 불교의 열반론과 도시문명의 허무의식을 비판적 감수성으로 표현하였다.
- ② (나): 춘향은 현실 초극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 ③ (다): 수미상관적 구성을 통해 시적 효과를 높이면서 서정적 자아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